LPG업계 주요 이슈

하이브리드카 LPG *vs* 가솔린 중 승자는?

오토타임즈 권용주 기자

하이브리드카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사상 초유의 고유가 상황이 하이브리드카시대를 더욱 앞당기고 있다. 국내에서도 하이브리드카 시판이 현실화됐다.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하이브리드카의 경쟁력 강화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산 자동차업체들은 LPG 하이브리드카를 앞세워 맞장을 뜰 태세다. 일본이 가솔린 하이브리드에서 앞섰다면 국산차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기술경쟁력이 있는 LPG 하이브리드로 대응하는 셈이다.

토요타는 최근 GS450h 가솔린 하이브리드를 국내에 선보였다. 토요타 하이브리드의 완결편으로 불리는 GS450h는 윗급의 하이브리드카인 LS600hL와 비교해 전기모터의 역할이 훨씬 커졌다. 그 만큼 가솔린 사용량을 더욱 줄인 것. 덕분에 고유가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같은 일본업체인 혼다 또한 하이브리드카에선 나름대로 틈새를 비집고 있다. 특히 시빅은 소형 가솔린 하이브리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가운데 가장 높은 연료효율을 갖고 있다.

국산차업체들은 LPG 하이브리드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휘발유 대비 연료가격이 50%에 불과한 LPG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 하이브리드 바람을 LPG로 몰고 가겠다는 계산이다. 또 일본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진출을 머뭇거리는 상용차, 특히 버스분야에선 이미 하이브리드카를 판매하고 있다. 기름을 많이 쓰는 대중교통의 하이브리드 전환을 통해 선점할 수 있는 분야는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이브리드카시장 전망

'하이브리드(Hybrid)'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혼합, 잡종'으로 해석돼 있다. 무언가 섞인 걸 의미한다. 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는 두 가지 이상의 동력원을 갖춘 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과 이를 보조하는 전기모터로 구성된다.

지난해 세계 하이브리드카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41만4,000대 정도였다. 최대시장인 미국의 경우 28만8,000대가 팔리며 전체 하이브리드카 판매의 70%를

차지했다. 데이코산업연구소는 글로벌 하이브리드카시장이 지난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연평균 3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에는 400만대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원유 가격이 배럴 당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음을 감안하면 하이브리드카의 성장폭은 더욱 커질 게 틀림없다.

하이브리드카에선 일본이 단연 앞서가고 있다. 일본은 연료전지가 상용화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하이브리드카에 주력했다. 하이브리드관련 특허의 대부분을 토요타가 보유한 것도 그 덕분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가솔린 하이브리드의 일반 판매를 늦춰야 했다. 실제 지난해까지 3년간 가솔린 하이브리드 판매에 앞서 시범운용을 했으나 핵심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너무 커 가격경쟁에 어려움이 생겼던 것.

국내 업체 관계자는 "정책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새삼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오래 전 하이브리드카에 매진하라는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지금 벅차게 쫓아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은 시작됐다

국내 하이브리드카의 판매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다. 그러나 판매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하이브리드카의 가격에 달려 있다. 토요타와 혼다 등은 가솔린 하이브리드의 경우 일반차종보다 300만~400만원 비싸게 팔고 있다. 쉽게 보면 전기구동 시스템 값만 더한 셈이다. 이에 반해 현대자동차가 출시를 준비중인 아반떼 LPG 하이브리드는 2,300만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배기량이 1,600cc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2,000만원이 적정선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격에 내놓기란 쉽지 않다는 게 현대측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2,300만원도 최대한 가격을 낮췄을 때 산출되는 예상값"이라며 "어떤 변수가 있을 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줄지는 못해도 오를 수는 있다는 의미다.

국산차업체들은 정부의 지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세제 상 지원을 통해 구입가격을 낮춰주면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이미 정부는 저공해차보급방침에 따라 하이브리드카가 판매될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감면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저공해차 모두에 해당된다. 즉 2,300만원짜리 1,600cc급 LPG 하이브리드카의 세금이 200만원 정도 감면된다면 동일하게 토요타와 혼다의 하이브리드카에도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된다. 일본차와 가격차이를 줄여야 하는 국산차업체들에게 정부 지원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하이브리드카 경쟁에서 한국이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정부의 전폭적인 기술개발 지원과 국민들의 호응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과거와 같이 애국심에 의존해 국산차를 사달라고 호소하던 시대가 지난 걸 감안하면 메이커 스스로의 생존력을 키워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토타임즈 6-16]